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2021. 1.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3~4년 주기) **종합감사 시기 도래**(직전 감사 2017.4월 실시)
- 전국은행연합회의 고유사업, 예산집행·회계처리, 인력·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은행권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감사기간: 2020.11.9.(월) ~ 11.20.(금), 10일

□ 감사대상: 2017.4월~2020.10월 전국은행연합회 업무 전반

□ 감사요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외 6명

-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6명, 한국회계기준원 1명

□ 감사중점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계약사무의 처리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
- 종전 금융위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2. 감사결과 지적사항

① 고유사업 분야

□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넛콜) 서비스 활성화 미흡

- 2017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금융관련 음성 및 문자 스팸 건수’에 비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넛콜) 서비스*의 등록률은 매우 저조

*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범정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3.10.) 추진과제의 하나로 12개 금융업권이 공동 구축하고(2015.1.1.), 은행연합회가 운영·관리 중

<두넛콜 서비스 이용현황>

연도	'15	'16	'17	'18	'19	'20.1~10월
방통위 조사 음성·문자 스팸건수	-	-	1,209,066	1,173,957	998,103	1,455,067
두넛콜 서비스 등록 건수	931,178	683,297	378,147	467,361	266,161	375,881
등록률(%)	-	-	31.3	39.8	26.7	25.8

※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융관련 음성·문자스팸건수 조사는 2017년부터 실시

- 이처럼 금융업권 공동출자 비용으로 개발한 두넛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고 등록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 스팸 차단 휴대폰 어플 증가,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제 실시, 광고성 문자 발송시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 안내 등 다양한 요인도 있겠으나
- 2014년부터 현재까지 두넛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2건)* 등 다각적 노력이 부족했음

* 2014.8.28.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12개 금융업권 공동 보도자료, 2018.3.31.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 ⇒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넛콜)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통보)

② 채용 분야

□ 채용규정 불합리

- 은행연합회는 「인사규정」 제8조 채용방법에서 공모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공모전형에 의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인사규정] 제8조(채용 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공모전형에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에 관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 및 일정한 기술·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책임자급을 채용하는 경우
4. 연합회를 퇴직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채용하는 경우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직·책임자급 채용시 지원 자격 등을 두는 제한 경쟁채용 등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상기와 같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존치하여 오히려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은행연합회는 공개모집 전형에 의하지 않는 채용 사유를 최소화 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필요 (제도개선)

□ 채용 세부전형별 평가기준 미비

- 은행연합회는 2019년 채용시 채용 전형별로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심사표에 총점으로만 채점함에 따라
 -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따라 0~100점 사이에서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 점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공정성과 변별력이 매우 약함

⇒ 은행연합회는 사전에 채용 전형 단계별 심사기준과 점수 비중을 정하여 채용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제도개선)

③ 예산집행/회계처리 분야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

-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회계 경비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85.7% 수준으로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높지 않으며, 연평균 13.3억원이 불용되고 있음
- 항목별로 보면 복리후생비와 용역비에서 연례적으로 상당 수준의 불용 (3억원 초과)이 발생하였고,
- '17년에는 수선유지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32백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이 67.5%(불용 68백만원)로 예산과 집행률간의 괴리가 발생

<최근 3년간 경비예산 중 불용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경비예산	9,456	7,547	1,909 (79.8%)	9,201	8,240	961 (89.6%)	9,437	8,290	1,148 (87.8%)
복리후생비	1,835	1,523	312 (83.0%)	1,909	1,717	192 (90.0%)	2,042	1,721	321 (84.3%)
용역비	1,541	1,130	411 (73.3%)	1,713	1,405	308 (82.0%)	1,549	1,213	336 (78.3%)
수선유지비	210	141	68 (67.5%)	141	113	28 (79.9%)	121	98	23 (80.6%)

- 한편, 회계별 예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를 위해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매분기별 예산집행 실적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4개 특별회계*의 경우 미보고

* 수익사업, 세금우대, 고액현금, 휴면계좌 특별회계

⇒ 은행연합회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경비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할 필요 (주의)

□ 국외여비 지급제도 불합리

- 은행연합회는 국외여비 지급시 숙박비·식비·일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당 체재비로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어, 숙박비가 실제 숙박일수보다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며
- 또한, 국외여비 지급 기준 지역을 일본·유럽과 기타 지역으로만 구분하여 출장지의 물가 수준에 맞는 여비 지급에 한계가 있음
- ⇒ 은행연합회는 국외여비 체재비를 숙박비·식비·일비로 구분하는 등 실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출장지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경비 지급의 현실화가 되도록 「여비규정」을 개정할 필요 (제도개선)

□ 일부 복지항목을 복지규정에 누락

- 은행연합회는 「복지규정」에 없는 임원에 대한 휴가보조비, 건강문화보조비를 신설하여 2011년부터 내부품의로 지급하고 있고
- 직원에 대한 선택적복지비는 「복지규정」에 근거없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에만 근거하여 일반예산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음
- ⇒ 은행연합회는 복지항목 관련 규정의 일관성·투명성을 고려하여 「복지규정」에 누락된 복지 항목을 반영할 필요 (제도개선)

□ 콘도회원권 운용 기준 미비

- 은행연합회는 직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1993년부터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 중인데, 휴양시설에 대한 별도의 운용기준 없이 수시로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배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예측이용 가능성이 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은행연합회는 콘도회원권 이용자 범위, 성수기 예약절차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 (통보)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절

- 자본적 지출이 기존의 건물과 관련된 후속적 지출인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나
- 은행연합회는 2019년 헬스클럽 환경개선 공사와 건물 승강기 교체 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 내용연수 40년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

<감가상각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현 감가상각비				정당 감가상각비		차이 (B-A)
	취득일	내용연수	취득금액	감가 상각비(A)	잔존 내용연수	감가 상각비(B)	
헬스클럽	2019.02.01	40년	991	23	19.83년	46	23
승강기교체	2019.06.19	40년	992	14	19.50년	29	15

* 기존 건물의 상각완료일(최초 취득 1998.12.30, 내용연수 40년)까지 잔여기간 기준으로 산출. 개별적으로 내용연수 추정 시 이와 다를 수 있음

- 또한 은행연합회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뱅커스클럽 상표권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하지 않아, 취득('98년) 이후 장부금액에 변동이 없음
 - 한편 은행연합회는 예산·회계시스템에 고정자산 등록시 내용연수를 입력하고 있으나, 현재 내용연수 부정확 등 일부 기초 정보가 잘못 입력된 사례가 존재
- ⇒ 은행연합회는 2019년에 인식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효과를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예산회계시스템에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할 필요 (시정)

4 모범사례

□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모범적 활용

- 은행연합회는 2012년부터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의 50%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에 기부하여 지금까지 총 13,384,580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 *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긴급자금 지원 및 범금융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재원으로 사용
- 연말에 소년소녀가장, 성모의 집 등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에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